

광주관광 회복 가속도...코로나 이전 수준

3분기만에 432만여명 지난해 대비 64%↑ ...문화·역사여행 늘어 영산강문화관, 5·18민주운동기록관, 국립광주박물관 방문객 증가

광주시의 '꽃길 조성 만들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광주를 찾은 관광객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집계하는 주요 관광지별 입장객 통계에서 3분기 광주 관광객 수는 155만7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3만 2911명 대비 86% 증가한 것이다. 올 1, 2, 3분기 누적 관광객 수는 432만3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3만1551명보다 64% 늘었다.

지난해 연간 관광객(307만5106명)보다 많았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626만8660명) 수치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 42개 주요 관광지 중 영산강문화관, 5·18 민주운동기록관, 국립광주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과거 무등산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양림동 근대 역사문화 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공영 마루, 전일빌딩 245 등 문화예술과 역사여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예술관광 및 문화관광자원을 꾸준히 확충한 결과물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조성한 금남로공원 '금남로비정원'과 5·18민주광장 '빛의 분수' 등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다채로운 야간관광자원 등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방문 관광객의 선호 관광 형태는 ▲생태관광 61만명 ▲MICE관광 28만명 ▲전시·박물관 28만명 ▲체험관광 15만명 ▲역사관광 10만명 ▲문화예술 5만9000명 ▲생활관광 2만5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호텔 객실 이용률, 관광객 유치 보상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지역 관광호텔 4곳 평균 객실 이용률은 45%로, 2020년(37%)과 2021년(41%)에 비해 상승했다. 광주시의 관광객 유치 보상금도 올 3분기까지 관광객 숙박일수 합계 2557박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은 880박, 2021년은 965박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통상 방문객이 많았던 10월 '시월 광주'라는 표제로 중장 월드컵 페스티벌(53만명), 버스카드 월드컵, 세계 김치 축제(6만여명) 등을 이어갔으며, 4분기 누적 관광객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방문객 수와 인센티브 운영현황 등 관광 통계지표의 개선은 광주 관광 활성화가 저변에서부터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예정된 시립수목원,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역사이팅 사업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프라들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시민과 외지 방문객이 모두 체감하는 활력 가득한 새로운 관광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YWCA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 광주YWCA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이 1일 오전 광주 북구 유동 YWCA 건물 앞에서 열려 김성욱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제막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기념비는 1922년 여성의 힘으로 정의와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창립된 광주YWCA의 100년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코로나 재유행 빨라지나...신규확진 5만명 훌쩍

46일만에 다시 5만8379명...전날보다 3.15배 급증

코로나19 재유행이 예고되면서 전국적으로 하루 6만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전남에서도 전날보다 두배 이상 신규 확진자가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8379명 늘어 누적 2561만5667명 이 됐다고 밝혔다. 주말 진단검사 수 감소로 확진자 수가 적었던 전날(1만8510명)보다 3만9869명 늘어 3.15배 수준이었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4만3742명)과 비교하면 1만4637명 늘었고, 2주일 전인 지난달 18일(3만3221명)보다는 2만5158명 늘어 반등세가 뚜렷했다. 하루 확진자 수가 5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 16일(5만1848명) 이후 46일만이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6일(9만9813명) 이후 8주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광주·전남도 이날 2632명이 신규 감염됐다. 광주 1095명, 전남 1537명 등으로, 일요일이었던 하루

전(980명)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형성된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겨울 재유행이 올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재유행 시점이 빠르면 이번 달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해학·풍자 '탈춤', 인류무형유산 등재될 듯

유네스코 산하 평가기구 등재 권고...28일~12월3일 결정

탈을 쓰고 추는 전통 무용인 우리나라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1일 유네스코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한국의 탈춤 (Talg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을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서가 제출된 유산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등재' (inscribe), '정보보완(등재 보류)' (refer), '등재 불가' (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의 탈춤'은 '등재'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

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등재 여부는 28일(현지시간)~12월 3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17차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평가기구는 한국 측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해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과도한 상업화에 따른 위험을 해결하려는 모험적인 노력을 잘 설명했다"며 준비가 잘된 모습 사례로 평가했다.

결과에 따라 '한국의 탈춤'은 한국의 22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비롯해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가곡, 대목장, 매사냥 등 총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계도기간 1년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인데, 1년 가가운 기간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다가 결국 또다시 정책 후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재래시장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획이 없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1면에서 계속

특히 이번 참사 피해자는 10~20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됐는데, 자신의 또래가 화를 입은 경우 '나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감정이 입도 깊게 된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감, 상실감, 죄책감, 매스꺼움, 심장박동 증가, 수면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

한국임상심리학회도 PTSD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침을 통해 심호흡과 충분한 휴식을 하고 자신을 위로·격려해야 하며, 사고 관련 기사·정보에 몰두하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속연한 분위기애 희사·술자리를 줄줄이 취소=광주·전남 직장인들은 '국가예도기간'에 맞춰 회

식이나 술자리를 최소화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광주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박현정(31)씨는 "3~4일 이틀 동안 직원 워크숍을 열 예정이었는데 전부 연기됐다"며 "피해자를 추모하고 애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희사·술자리는 물론 다른 기념식, 행사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김준표(29)씨도 "평소 매주 1~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곤 했는데 참사 이후로는 당분간 술자리를 하지 말자는 분위기"라면서 "교정도도 조기(弔辭)를 걸어 놓고 학생들과 함께 애도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내 또래니 더 숙연해진다"며 말끝을 흐렸다.

행정안전부는 공지사항에 단체 회식과 과도한 음주 등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2023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인 연구네트워크 구축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형일정

구분	일시(기간)	진소 및 면세사항
입학원서 작성 (인터넷으로 작성)	2022. 11. 8.(화) 09:00 ~ 11.23.(수) 18:00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일력) 후 원서 등을 출력
구비서류 제출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22. 11. 8.(화) 09:00 ~ 11.23.(수) 18:00	• 제출장소: 산업대학원 행정실 (공과대학 4층관 202호) • 제출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61186 • 출원한 입학원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 및 전원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
전형일시	2022. 12. 6.(화) 10:00 ~	• 지원학과(전공)에서 지정한 장소 (신분증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2. 12. 21.(수) 10:00 예정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신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발전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특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계거진

광공문의 227-9600 | 신문구독 220-0551 | 예향구독 220-0550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2. 11.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의 총액 536,000,000 원 중 금214,400,000원을 감소하여 금 321,6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 주의 금액 10,000원의 보통주식 10주에 대하여 보통주식 6주의 비율로 병합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이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월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일
주식회사 새한전기통신공사
총참모장 홍성근 홍성음 총서로
1575년길 87
대표이사 유병근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2년 11월 1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 650,000,000원 중 금 576,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의 액 금 74,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병합하여 보통주식 40,000주 중 39,000주를 병합하는 주주총회 1차 3.57%에 해당하는 유상소액의 총 발행주식 40,000주를 2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본 회사를 방문하여 주권이 제출된 후 2022년 12월 02일까지 이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2년 11월 2일
주식회사 새한전기통신공사
전남도 무안시 삼향읍 삼향로 140-51
대표이사 조재용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2년 11월 0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65,000,000원 중 57,600,000원을 본 회사가 병합하는 사원 발행주식 1,394주 10,000원으로 병합하여 소액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의의가 있는 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022년 12월 02일까지 이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2년 11월 2일
유한회사 남해안
전남도 무안시 삼향읍 삼향로 140-51
대표이사 조재용

산행안내

11월5일(토)
▲광주호신회 11월5일(토) (청주 참남대 국화 축제 및 대명령길 단풍 트레킹) 오전 06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자장출발 07시 롯데마트 화정 07시15분 문화예술회관후문 ※ 다음카페 광주호신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先州日報 구독문의 11월 22 22 00 00 55 55 10